



참개암나무 / *Corylus sieboldiana* Blume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개암나무속
과국명	자작나무과

<p>과명</p>	<p>Betulaceae</p>
<p>일반특징</p>	<p>요약설명 : 자작나무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라는데, 제주도에서는 해발 1200m이하의 숲 속에서 자라며,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에서도 볼 수 있다. 중국, 일본에도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중국, 일본; 전국 각지(제주도에서는 해발 1,200m이하의 숲속에서 자람)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관목</p> <p>크기 : 높이 4m.</p> <p>꽃색 : 녹색</p> <p>개화기 : 4월,3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달걀 같은 둥근 모양 또는 거꿀달걀모양이다. 짧은 점첨두고 원저 또는 심장저와 비슷한 모양이다. 가장자리에 뚜렷하지 않은 결각과 작은 톱니가 있다. 겉면의 맥 사이와 뒷면의 맥 위에 털이 있으며 옆으로 뺀 맥은 9~10쌍이다. 잎자루에는 털이 있고 분비샘이 발달한 털이 섞여 있다. 어린 잎의 겉면에는 자주색 무늬가 있다.</p> <p>꽃은 3월에 피고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달린다. 수꽃차례는 전년도에 생겨 밑으로 처지고, 암꽃차례는 10여 개의 암술대가 밖으로 나온다.</p> <p>열매는 딱딱한 껍질에 싸여 있으며 총포 조각이 잎처럼 발달하였다. 총포 끝에 톱니가 있으며, 열매가 들어 있는 부분부터 급격히 좁아진다. 또한 겉면에는 갈색 털과 가시털이 촘촘히 나 있어 손으로 만지면 잘 찢리고, 찢린 가시는 잘 빠지지 않는다. 열매는 달걀 모양이고 털이 없으며 9월에 익는다.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다. 어린가지는 잔털이 있고 분비샘이 발달한 털이 섞여 있다.</p> <p>전국 산지의 중턱 아랫부분에서 자란다. 뿌리 나누기를 하거나 씨앗을 뿌려 번식시킨다.</p>